

안서우의 생애와 시조 창작 배경

김용찬*

<차 례>

1. 머리말
2. 안서우의 생애와 활동 양상
3. 안서우 시조의 창작 배경과 작품 세계
4. 맺음말

<국문초록>

안서우는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사대부이며, 19수나 되는 시조 작품을 남긴 시조 작가이기도 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의 작품들 중 <유원십이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그의 생애와 작품의 창작 배경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채로 논의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재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됨으로써, 작품 세계는 물론 작가론의 차원에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안서우의 생애와 함께, <유원십이곡>을 비롯한 그의 시조 전체를 대상으로 작품 세계를 논하였다.

조선 후기 사대부의 생애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남인(南人)이었던 안서우의 삶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안서우가 과거에 급제 하였던 17세기 말엽에는, 남인과 서인(西人) 사이의 권력을 둘러싼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기록들을 근거로 그가 1712년에 당쟁에 휩쓸려 관직에서 물러나, 충청도 제천의 유원에 은거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언급한 바와 달리, <유원십이곡>을 비롯한 시조 작품들도 이 시기에 창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순천대학교

그동안 13수로 알려졌던 <유원십이곡>은 전체 12수로 구성된 연시조이며, '전6수'와 '후6수'가 긴밀하게 조음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작품은 대부분 자연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화자가 자연에 머물면서 자족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안서우는 오래지 않아 중앙 정계에 복귀하였고, 63세에 관직에서 물러나 전라도 무주에서 지내다가 72세에 생을 마쳤다. 그의 작품들 중에서 <유원십이곡>의 구조와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추가 작업을 통하여 더욱 정밀한 고찰을 시도할 예정이다.

핵심어 : 안서우, 양기재산고, 시조, 유원십이곡, 육가계 시조, 창작 배경

1. 머리말

조선 후기의 시조사는 대체로 사대부 위주로 형성되어 왔던 기존의 경향과는 달리, 새로운 담당층인 여항인(閭巷人)의 출현과 이들의 주도로 주요 가집이 편찬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다량의 작품을 수록한 가집(歌集)의 출현은 조선 후기 시조의 연행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던 바, 전문 가창자(歌唱者)들로 하여금 연행 현장에서 안정적인 연창(演唱)을 가능케 하는 작용을 하였던 것이다. 새로운 담당층으로 등장한 이들의 역할과 활동 양상을 따져 조선 후기 시조사의 구도를 정립하는 것은 일견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사대부들에 의한 시조의 창작과 유통도 역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적지 않은 수효의 작품을 남긴 사대부 작가들의 존재는, 시조사의 연속성과 함께 변화의 양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다루어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조선 후기 시조사를 전개하고자 할 때, 여항인들의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사대부 작가들의 작품들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안서우(安瑞羽:1664~1735)는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사대부 작가이다. 그는 19수나 되는 적지 않은 시조 작품을 남겼음에도, 기존의 연구에서는 연시조인 <유원십이곡(楡院十二曲)>에만 초점이 맞춰져 다뤄지기도 했다. 그의 작품이 수록된 『양기재산고(兩棄齋散稿)』가 현재 분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그의 생애는 물론 작품의 수록 현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의 생애나 작품의 창작 배경 등에 관한 정보가 불확실하기에, <유원십이곡>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안서우에 관한 작가론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안서우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정보는 초창기 연구자들에 의해 서술되었던 내용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그의 대표적인 연시조 작품인 <유원십이곡>은 전체 12수가 아닌 13수로 소개되었고, 이 작품의 창작 배경 역시 그가 만년에 은거하였던 전라도 무주로 소개되기도 했다.¹⁾ 이러한 내용은 원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서술된 것이며, 이로 인해 안서우의 생애는 물론 그의 작품들에 관한 정보도 부정확하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의 작품 중 <유원십이곡>이 이른바 ‘육가계 시조’의 하나로 거론되며 다뤄졌으나,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이러한 오류는 바로잡혀지지 못한 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²⁾

비록 문헌이 분실되어 원본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안서우의 작품들과 해제가 수록된 자료의 발견으로 <유원십이곡>을 비롯한 작품의 현황과 면모에 대해서 새롭게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³⁾ 이익(李瀾)

1)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세종문화사, 1972, 135면.

2) 정혜원, 「18세기 강호시조 연구-연시조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4호, 상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윤정화, 「18세기 향촌 사대부의 ‘육가’ 수용의 양상과 의미」, 『문창어문논집』 제38집, 문창어문학회, 2001; 김상진, 「안서우의 <유원십이곡> 재조명」, 『온지논총』 제19집, 온지학회, 2008 등.

3) 해방 공간에서 활동했던 ‘우리어문학회’의 기관지인 『어문』 제3호에 안서우의 작품과 함께 간략한 해제가 소개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달리 <유원십이곡>은 13수가 아닌 전체 12수로 이뤄진 연시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의 문집인 『성호전집』에 안서우의 ‘묘갈명’이 수록되어 있는데,⁴⁾ 이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생애를 재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그의 손자인 안정복(安鼎福)의 ‘행장’과 ‘연보’⁵⁾는 물론,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 등 기타 다양한 기록들에서도 안서우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불확실한 채로 남겨졌던 그의 생애에 대해서 가능한 한 상세하게 밝히고, <유원십이곡>을 비롯한 시조의 창작 배경과 작품 세계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이들 기록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원(楡院)’은 그가 장년에 은거하였던 충청도 제천 지역의 지명이며, <유원십이곡>을 비롯한 그의 시조 작품들 역시 안서우가 유원에 은거하였을 당시에 창작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안서우의 생애와 시조 창작의 배경에 대해서 재구해 보고, 그의 작품 세계를 살펴 안서우에 관한 작가론을 시도하고자 한다. 당시 남인(南人) 계열이었던 안서우의 생애는, 남인과 서인의 대립으로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17~18세기의 정치적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당색(黨色)의 부침에 따라 그의 삶도 정치적 굴곡을 피할 수 없었으며, <유원십이곡>을 비롯한 그의 작품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창작되었던 것이다. 작품 속에 반영된 형상은 그의 삶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온전히 이해될 수가 있을 터인데, 작품의 창작 시기는 물론 그 배경에 관해서도 작가의 삶과 연관시켜 논의하도록 하겠다.

다. 정형용 제공, 「유원십이곡」, 『어문』 제3호, 우리어문학회, 1950, 30~31면.

4) 이익, 「울산부사 안공 묘갈명(蔚山府使安公墓碣銘) 병서(并序)」, 『성호전집』 제61권. 『성호전집』에는 안서우의 아들이자, 안정복의 부친인 안극(安極: 1696~1754)의 묘갈명(篤行安公墓碣銘 并序)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익은 안서우의 손자인 순암 안정복의 스승인데, 이 묘갈명들은 제자인 안정복의 부탁으로 작성한 것이다.

5) 황덕길, 「순암선생 행장(順菴先生行狀)」, 『순암집』; 「순암선생 연보」, 『순암집』.

2. 안서우의 생애와 활동 양상

조선 후기 사대부의 생애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마련이다. 안서우는 당색이 남인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가 과거에 급제 하였던 17세기 말엽에는 숙종 치하에서 남인(南人)과 서인(西人)의 권력 쟁투가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⁶⁾ 숙종이 즉위한 이후 정국은 현종 때의 예송논쟁(禮訟論爭)의 여파로 서인과 남인 사이의 권력 다툼이 심하였고, 숙종 재위 기간 동안 정권 담당층이 교체되는 환국(換局)이 세 차례나 발생하였다.⁷⁾ 즉 숙종 초에는 현종 때의 예송의 결과로 서인이 몰락하면서 남인이 집권하였지만, 숙종 6년(1680)의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게 된다. 그러나 숙종 15년(1689)의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이 집권하였다가, 그로부터 5년 후인 1694년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서인 계열의 노론(老論)이 재집권하게 된다.⁸⁾ 이후 18세기의 정국은 서인 계열의 노론과 소론(少論)이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담당했으며, 남인은 다시 정권을 잡지 못하고 몇몇 인사들이 관직에 나아가 개별적으로 조선 후기의 정국 운영에 참여했을 뿐이다.

6) 이하 숙종조의 정치적 상황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이희환, 「갑술환국과 숙종」, 『전북사학』 11·12합, 전북사학회, 1989; 이태진, 「18세기 남인의 정치적 쇠퇴와 영남지방」, 『민족문화논총』 제11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이이화, 「조선조 당론의 전개 과정과 그 계보」, 『조선 후기의 정치 사상과 사회 변동』, 한길사, 1994; 정경희, 「숙종조 후반기 탕평 정국의 변화」, 『한국학보』 21권 2호, 일지사, 1995; 이희환, 『조선정치사』, 해안, 2015 등.

7) 일반적으로 숙종조 이후의 정치사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환국(換局)’은 국왕이 주체가 되어 붕당을 번갈아 바꿈으로 붕당세력을 조정·억압하고자 한 것으로, 기왕의 붕당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왕권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 붕당을 주도하기 시작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정경희, 앞의 논문, 163면.

8) 주지하듯이 ‘기사환국’과 ‘갑술환국’은 숙종의 후궁인 희빈 장씨가 세자(경종)를 출산한 이후, 계비(繼妃)인 민씨를 폐서인(廢庶人)하였다가 복위(復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고 장씨가 왕비에 오르면서 민씨는 폐서인되었고, 갑술환국으로 노론이 집권하면서 희빈 장씨가 사사(賜死)되고 민씨가 정비로 복위하였다. 일반적으로 서인은 숙종 9년(1683)에 남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두고,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나뉘어졌다고 논의되고 있다. 이이화, 앞의 논문, 33~38면.

이러한 시기에 중앙 정계에서 활동했던 안서우의 생애를 살피는데 있어, 개인적 역량은 물론이고 그가 처한 정파적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여러 차례의 환국이 거듭되었던 숙종조에는 정권을 어느 당파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관직의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안서우의 생애와 활동 양상 역시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연관시켜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안서우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원십이곡>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체로 ‘강호시조’ 또는 ‘육가계 시조’의 하나로서 다루어져 왔다.⁹⁾ 이들 연구에서는 대부분 그의 생애에 관해서, 심재완이 서술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논의를 펼쳤다.

『양기재산고』는 안서우의 문집이다. 이 문집은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바 있었으나, 지금은 분실되고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본서의 저자 안서우는 순암 안정복의 조부로 자(字)를 봉거(鳳舉), 호를 양기재(兩棄齋)라 하였다. 숙종 갑진(1664)에서 영조 기묘(1735) 사이에 생존한 사람이다. ‘성묘종사사건(聖廟從祀事件)’으로 연루되어 30년간 낙척(落拓)하고, 관(官)은 울산 부사에 그쳤다.¹⁰⁾

심재완은 안서우를 소개하면서 ‘성묘종사사건에 연루되어 30년간 낙척하’였다고 서술하였다.¹¹⁾ 이를 근거로 안서우가 벼슬에서 물러나 오랫동안

9) 최재남, 「‘육가’의 수용과 전승에 대한 고찰」, 『관악어문연구』 1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7; 정혜원, 「18세기 강호시조 연구-연시조 작품을 중심으로」; 윤정화, 「18세기 향촌 사대부의 ‘육가’ 수용의 양상과 의미」; 김상진, 「안서우의 <유원십이곡> 재조명」 등.

10)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135면.

11) 아마도 심재완이 보았던 자료에는 안서우의 묘갈명 내용이 축약되어 실렸던 것으로 보인다. 심재완의 이러한 저자 소개는, 우리나라의 여러 성씨를 각 파별로 나누어 세계도(世系圖)를 구축한 후 각 인물들의 기본 정보를 수록한 『한국계행보(韓國系行譜)』(박증서 편, 1959; 보고서 영인, 1992)의 광주 안씨 항목에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다. 『한국계행보』의 안정복 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安瑞羽(文). 兩棄齋. 洪萬燾 女. 受業於朴霞溪, 文詞敏給, 一時儕流, 敢無先之. 肅宗 辛未生員, 甲戌文科. 時論言瑞羽嘗與之議聖廟從祀之事, 不許槐院之選. 自是落拓, 三十餘年. 官至蔚山府使. 愛茂朱山水之勝. 卜居裳岳之下. 足不踏京路. 後除僉中不起.

안 은거하였던 ‘향촌 사대부’로 잘못 파악하여 논한 연구도 제출되어 있다.¹²⁾ 그러나 안서우는 과거에 급제한 31세 이후 정치적 이유로 잠시 정계에서 물러나 있었을 뿐, 울산부사를 역임한 63세 무렵까지 관직에서 떠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¹³⁾ 그가 울산부사를 그만 둔 63세부터 만년에 전라도 무주에서 10여 년간 생활하다가 72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이익이 지은 그의 ‘묘갈명’을 통해, 안서우의 생애를 살펴보기로 한다. ‘묘갈명’은 작성자인 이익이 글을 쓰게 된 동기와 안서우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광주 안씨의 세계(世系)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다음으로 안서우의 행적과 생애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그의 부인과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묘갈명 주인공의 성품을 기록하고, 4언 6구의 한시 형태로 명(銘)을 덧붙이며 마무리하였다.¹⁴⁾ 다음의 내용은, ‘묘갈명’ 중에서 안서우의 경력을 포함한 일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다.

공은 휘(諱)는 서우(瑞羽)¹⁵⁾, 자는 봉거(鳳舉)이다. 어려서 남달리 영특하

乙卯卒 七二.”(『한국계행보(天)』, 1888면).

- 12) 대표적으로 윤정화는 안서우를 “과거를 통해 관직에 오르지 못했거나, 과거나 천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한 경우에도 자신의 포부를 실현시킬만한 입지에 오르지 못한”(윤정화, 앞의 논문, 118면) ‘향촌 사대부’로 파악하여 작품론을 전개하고 있다. 정혜원 역시 안서우를 “중앙정치에서 소외되고 향촌사회에서도 주도권을 상실하여 가는 재지사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혜원, 앞의 논문, 77면.
- 13) 뒤에 확인하겠지만, 심재완의 소개나 『한국계행보』의 기록들은 ‘묘갈명’의 내용을 잘못 축약한 결과 나타난 오류이다. 즉 ‘묘갈명’에는 “이로부터 낙척하였다(自是落拓)”는 기록 다음에 ‘30여 년간’ 안서우가 두루 거쳤던 내·외직의 관직명을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이로부터 30여 년간 낙척하였다’고 잘못 축약되었던 것이다. 특히 불우한 환경이나 역경에 빠진다는 의미의 ‘낙척(落拓)’이란 표현은, 안서우가 문과에 급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벼슬이 당상관(정3품)이 아닌 울산부사(종3품)에 그친 것에 대한 후손으로서의 아쉬움의 표현이라 여겨진다. ‘묘갈명’에서 그가 역임했다고 하는 승문원(괴원) 판교는 정3품직이지만, 당상관이 아닌 당하관이다.
- 14) 흥미롭게도 안서우의 ‘묘갈명’에는 유원에서 생활했던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뒤에서 살펴겠지만, 안서우가 유원으로 이사해 생활했던 기록은 그의 손자인 안정복의 ‘연보’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여 12세에 시서(詩書) 및 사서(四書)와 여러 사가(史家)의 글들을 두루 익혔다. 일찍이 하계(霞溪) 학사에게서 공부하였는데, 학사가 자주 칭찬하기를 ‘후생(後生) 가운데 능히 윗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부지런히 학문에 힘쓰는 자는 오직 아무개뿐이다.’ 하였다. 그 문사(文詞)가 민첩하면서도 넉넉하였으니, 당시 중유하던 이 중에는 혹시라도 감히 앞설 이가 없었다. 신미년(1690)에 성균관(國子) 생원이 되었으며, 4년이 지난 갑술년(1694)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당시 여론은 공이 일찍이 성묘(聖廟)에 종사(從祀)하는 논의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괴원(승문원)에 선출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이로부터 낙척(落拓)하였다. 30여 년간 성균관에서는 전적(典籍, 정6품)부터 사예(司藝, 정4품)에 이르렀고, 예조에서는 좌랑(정6품)부터 정랑(정5품)에 이르렀으며, 통례원에서는 상례(相禮, 종5품)가 되었고, 괴원(槐院)에서는 판교(判校, 정3품)가 되었다. 외직으로는 창락승(昌樂丞, 종6품)¹⁶⁾이 되었고, 비인현감(庇仁縣監, 종6품)이 되었으며, 태안군수(泰安郡守, 종4품)가 되었다가 끝내 울산부사(종3품)로 그쳤으니, 아, 운명이다.¹⁷⁾

안서우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정진하여 하계(霞溪) 권유(權愈:1633~1704)¹⁸⁾를 스승으로 모시고 수학하였다. 그의 스승인 권유는 물론이고, 그의 ‘묘갈명’을 작성한 이익(李瀼:1681~1763)¹⁹⁾ 역시 모두 남인 계열의

15) 원문에는 ‘단우(端羽)’로 되어 있으나, 이는 ‘서우(瑞雨)’의 오기이다.

16) 창락은 경상도 순흥부의 역(驛)이며, 승(丞)은 역을 관장하는 직위인 찰방(察訪)의 다른 명칭이다.

17) “公, 諱端羽, 字鳳舉. 幼悟絶人, 年十二徧習詩書, 及四子諸史家. 既而受業于霞溪學士, 學士亟稱曰‘後生中能遵長者誨, 孜孜幼學者, 惟某也.’ 其文詞敏而給, 一時遊從, 莫或敢先. 辛未, 補國子生員, 越四年甲戌, 文科出身. 時論謂公嘗與議聖廟從祀事, 不許槐院之選, 自是落拓. 三十餘年間, 國子自典籍至司藝, 禮曹自佐郎至正郎, 禮院爲相禮, 槐院爲判校. 出爲昌樂丞, 監庇仁縣, 守泰安郡, 卒爲蔚山府使而止. 噫命矣.” 「울산부사 안공 묘갈명 병서」.

18) “나의 할아버지께서 태학사(太學士) 하계(霞溪) 권유(權愈)에게 수학하였다.(余王考受學于權太學士霞溪愈.)”, 안정복, 「상헌수필(하)」, 『순암집』 제13권. 권유는 기사환국(1689)으로 남인이 집권하였을 때, 대사간과 예문관 대제학을 역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술환국(1694)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면서 유배되기도 하였다.

19) 이익의 집안인 여주 이씨는 당대의 대표적인 남인 가문이며, 그의 부친인 이하진이 경신환국으로 파직·유배되었다가 유배지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형인 이잠 역시 성균관 진사의 신분으로 1706년 노론인 김춘택 등을 탄핵하는 장소로 인해 붙잡혀 장살(杖殺)되었다. 이러한 일로 인해 그는 관직에 미련을 버리고, 재야에서 학문에 정진하게 된다. 강명관, 『책벌레들 조선을 만든다』, 푸른역사, 2007,

학자이다. 안서우는 27세에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694년에 문과에 급제했다.²⁰⁾ 그는 진사시에 급제한 이후 반궁(泮宮) 즉 성균관에 입학했고, 성균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르는 별시(別試)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했던 것이다. 비교적 늦은 나이인 31세에 성균관의 반시(泮試)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가 남인이 정권을 쥐고 있었던 시기였으며, 중앙 정계에서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스승 권유의 영향도 작용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안서우를 낙척(落拓)으로 이끌었다고 표현되는 ‘성묘종사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성묘(聖廟)’란 유가(儒家)의 종주인 공자(孔子)를 모신 사당인 문묘(文廟)를 일컫는데, 당대에는 유학자로서 사후에 문묘에 배향(配享)되는 것 곧 ‘문묘종사(文廟從祀)’를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였다. 숙종조에 발생했던 여러 차례의 환국은, 곧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 여부를 둘러싼 남인과 서인 사이의 치열한 논쟁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²¹⁾ 서인들은 인조 즉위 이후 자신들의 학통에 있어서 조종(祖宗)이라 여겼던 이이와 성혼에 대한 문묘종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하지만 그들을 견제하려는 남인들과 역대 왕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서인이 집권한 경신환국 다음해인 숙종 7년(1681)에 이이·성혼에 대한 문묘종사가 이뤄지게 되었다. 그러나 남인이 집권한 기사환국으로 다시 두 사람의 문묘 출향(黜享)이 결정되었다가, 노론이 집권한 갑술환국으로 다시 문묘에 배향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 이들의 문묘 종향(從享)과 출

193~194면.

20) ‘실록’에는 계유(1693)년 11월에 급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감귤을 반궁(泮宮)에 나누어 주고 책문(策文)을 여러 유생들에게 시험하여 여기에 뽑힌 이현(李璲)·신필현(申弼賢)·안서우(安瑞羽)·박인(朴鱗)·강영(姜瓚)에게 모두 급제(及第)를 내리도록 명하였다.”, 『숙종실록』 19년(1693, 계유) 11월 28일자 기사.) 아마도 시험을 봐서 급제한 것은 1693년이지만, 실제 그에게 관직이 내려진 것이 다음 해인 1694년이기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 생각된다.

21) 숙종조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하여 정리했다. 김상오, 「당쟁사의 관점에서 본 이이의 문묘종사 문제」, 『전북사학』 제4집, 전북사학회, 1980; 유성희·김연민, 「숙종조 노론의 도통론」,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호,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8; 이희환, 『조선정치사』 등.

향(黜享)이 결정될 때마다, 이러한 처사에 반대하는 당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갑술환국으로 남인이 조정에서 축출되고 노론이 집권하면서 숙종에 의해 이이와 성혼의 복향(復享)이 결정되자, 남인들은 조직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로 인해 반대 상소를 올렸던 관료들은 왕명을 거슬렀다는 죄명으로 파직되거나 유배형에 내려졌으며, 유생(儒生)들은 과거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정거(停擧)에 처해지기도 했다. 갑술환국으로 인해 예조판서였던 권유도 유배형에 처해졌기에,²²⁾ 그의 제자인 안서우 역시 남인으로서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을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묘갈명’의 ‘성묘종사’와 관련된 기록은 갑술환국 이후 노론 정국 하에서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에 반대하는 상소에 참여했던 것을 가리키며, 이로 인해 안서우는 파직되었다가 다시 등용되었을 것이다.²³⁾

안서우는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정권을 담당하던 시기에 생원시와 문과 별시에 급제하였고, 갑술환국으로 남인 정권이 축출되면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했지만 30여 년 동안 내·외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묘갈명’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안서우는 49세 되던 해에 충청도 제천의 유원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그의 손자인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의 ‘연보’에서, 안서우 가족들이 충청도 유원으로 이주했다는 다음의 기록을 찾아낼 수 있었다.

숙종대왕 38년 임진(1712-청나라 강희(康熙) 51년)

12월 25일 갑술일(술시)에 선생이 제천(堤川-호서 좌도(湖西左道)의 현

22) 『숙종실록』 20년 갑술(1694) 4월 10일자 기사; 같은 해 4월 15일자 기사 등.

23) 갑술환국 1년 후인 숙종 21년(1695) 5월에 남인에 대한 대규모의 석방과 감형이 시행되었는데, 유배되었던 안서우의 스승 권유의 감형도 이때 이루어졌다.(이희환, 『조선정치사』, 288면) 따라서 초급 관료였던 안서우에 대한 관직 복귀 역시 아무리 늦게 잡아도 이 시기에는 이뤄졌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縣) 이름이다.)현의 유원(楡院)에 있는 집에서 태어나다. 할아버지 참의공이 경성(京城)의 청과리(靑坡里)에 세들어 살고 있었다. 이 해 3월에 모부인(母夫人) 이씨(李氏)가 붉은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와 침상 주위를 감싸는 꿈을 꾸고는 드디어 임신하였다. 10월에 참의공이 가숙을 거느리고 제천의 유원에 있는 친척 윤훈갑(尹訓甲)의 집으로 이사가 살았다. 공을 낳던 날 새벽에 또 붉은 반점이 있는 표범을 가슴에 품는 꿈을 꾸고는 놀라 깨어났는데, 이 날 술시에 공을 낳았다.²⁴⁾

경성의 청과리에 세를 들어 살던 안서우는, 손자 안정복이 태어나던 해인 1712년 10월에 가족들을 거느리고 친척이 살고 있던 제천의 유원으로 이사를 했다. 관련 기록의 미비로 인해 그의 가족들이 유원으로 이주하게 된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안서우가 이 당시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되어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가족들을 이끌고 급작스럽게 서울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일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²⁵⁾ ‘실록’에 안서우가 1717년에 태안군수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나,²⁶⁾ 그의 유원 생활은 아무리 길어도 5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²⁷⁾ 안서우

24) “肅宗大王三十八年壬辰(淸康熙五十一年), 十二月二十五日甲戌(戌時). 先生生于堤川(湖西左道縣名)縣之楡院寓第. 祖考參議公, 僦居京城靑坡里. 是歲三月, 母夫人李氏夢赤氣自天而降, 遍繞寢處, 遂有娠. 十月, 參議公率家眷, 移寓堤川楡院戚人尹訓甲家. 當生之曉, 又夢有豹赤斑奇文, 抱於懷中驚覺, 是日戌時生.” 『순암선생연보』, 『순암집』.

25) 그의 아들인 안극(1696~1754)의 ‘묘갈명’에도 문묘종사의 논의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는데, 혹시 안서우가 이에 연좌되어 관직에서 물러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의 아들이 문묘종사의 논의에 참여한 것은, 안서우가 관련되었던 갑술환국(1694) 당시의 사건과는 서로 다른 시기의 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공(안극)은 일찍이 문묘종사(文廟從祀)를 논의하는 데 참여하였다가 당시의 의론과 어긋나 정거(停擧)의 처벌을 받았으며, 후에 정거의 처벌이 풀렸으나 다시는 시험장에 나아가지 않았다.(公嘗與議於聖廟從祀事, 忤時論罰殿擧, 後罰解而不復赴試闈.)” 『독행안공묘갈명 병서』.

26) 『숙종실록』 44년(1718, 무술) 9월 4일자 기사.

27) 아마도 내직에 근무한 이후 군수로 임명되었을 터이니, 실제 관직에 복귀한 것은 훨씬 먼저 이뤄졌을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안정복의 ‘연보’에는 유원에 정착한 3년 후인 1715년 가을, 안정복과 어머니가 제천에서 상경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밖에도 1717년 가을에는 안정복이 모부인과 함께 전라도 영광의 외가로 갔다는 내용이 있다. 만약 이 기록이 안서우의 관직 임명과 관련이 있다면, 유원에

가 ‘유원(楡院)’에서 살았다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유원십이곡>의 창작 시기와 배경은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안서우가 <유원십이곡>을 지은 것은 무주에 은거하던 만년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관직에서 잠시 물러나 유원에 머물던 49세 무렵의 어느 시점인 것이다.

‘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태안군수²⁸⁾와 울산부사²⁹⁾ 그리고 승정원 편수관 등³⁰⁾으로 활동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밖의 다른 이력들은 ‘묘갈명’ 이외에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는 울산부사 시절 ‘전정(田政)을 사사로이 사용했다’는 죄명으로 탄핵을 당하였으며,³¹⁾ 파직된 이후 무주의 본가에서 의금부로 압송³²⁾되는 등 명예롭지 못하게 관직을 그만두게 된다.³³⁾ 어떤 연고가 있어 그가 울산부사를 그만두고 무주의 주계(朱

정착한 3년 후인 1715년에 그는 내직에 복귀했고 다시 2년 후인 1717년에 태안군수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안서우의 유원 생활은 1712년부터 약 3년 정도라 하겠다.

28) 『숙종실록』 44년(1718, 무술) 9월 4일자 기사. 묘갈명에서도 태안군수로 재직할 당시의 일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태안군수로 있을 때에, 그곳은 땅이 비옥하고 바다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었는데, 권귀(權貴)가 긴 통발을 설치하여 이익을 독점하였지만 관(官)에서 감히 따지지 못하였다. 공이 세금을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거두고는 이어 소장을 올려 당시의 폐막(弊廢)을 논하였으니, 비단 한 고을을 위해서만 발론(發論)한 것은 아니었다.”, 「울산부사 안공 묘갈명 병서」.

29) 그가 울산부사로 임명되는 기록은 『승정원일기』(영조 1년(1725) 5월 17일과 7월 4일자 기사)에 보이며, 울산부사로서의 평가와 그에 따른 탄핵 및 파직에 관한 내용이 『승정원일기』(영조 2년(1726) 9월 3일, 12월 14일, 12월 15일자 기사)와 『영조실록』(영조 2년 3월 23일, 12월 14일자 기사)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30) 『승정원일기』에는 영조 즉위년(1724)부터 울산부사로 임명받기 전까지 승정원 편수관 등의 관직으로 활동한 내용이 모두 20건의 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안서우는 영조 즉위 후에 내직을 역임하면서 승정원의 활동에도 참여하였다가, 이듬해 울산부사로 취임하면서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31) 『영조실록』 2년 12월 14일자 기사.

32) “이정소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진 울산 부사(蔚山府使) 안서우(安瑞羽)를 잡아 가두어 과죄(科罪)하라는 전지가 계하되었습니다. 안서우가 현재 전라도 무주(茂朱)의 본가에 있다고 하니, 규례대로 본부의 나장을 보내어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승정원일기』 영조 2년 12월 15일자 기사.

33) 안서우의 탄핵 사유는 전정 3천여 결(結) 중 80여 결을 사사로이 사용했다는 것

溪)³⁴⁾에 정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 시기에는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곳에 터를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³⁵⁾ 그는 이곳에 정착하면서 ‘두 가지를 버린다’는 의미의 ‘양기재(兩棄齋)’라는 호를 취했는데, 버리겠다는 두 가지 중 하나는 관직에 대한 미련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안서우는 울산부사를 마지막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무주에 정착하였고, 그곳에서 환로(宦路)에 대한 미련을 끊고 10여년을 살다가 1735년에 72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던 것이다.³⁶⁾

3. 안서우 시조의 창작 배경과 작품 세계

안서우가 남긴 시조 작품은 모두 19수나 되는데,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그의 작품들 중에서 연시조인 <유원십이곡>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였다. <유원십이곡>에 등장하는 ‘유원(楡院)’은 안서우가 관직에서 잠시 물러나 49세(1712) 무렵에 은거하며 생활했던 충청도 제천 근처의 지명이다. 그는 충청도 유원에서 생활하다가 중앙 정계로 복귀한 이후, 다시 그곳으로

이며, 의금부에 압송된 이후 별다른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하옥되는 등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서우의 탄핵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도 당시 남인이었던 그를 견제하기 위한 서인 측의 정략도 작용했을 것이라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34) “병오년(1726)에 조부를 따라 울산(蔚山) 임소에서 호남의 주계(朱溪)로 돌아와 살고 있었다.(歲丙午, 余隨王父, 自蔚山任所返, 寓于湖南之朱溪.)”, 안정복, 「계북신사(溪北新舍) 병서(並序)」, 『순암집』 제1권.

35) “무주에 터를 잡고 살 때에, 무주가 서울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자취가 산 밖으로는 벗어난 적이 없었으니, 마치 벼슬한 적이 없는 사람과도 같았다. 양기옹(兩棄翁)이라고 자호(自號)하였다.(及卜居于朱, 朱之去京師絕遠, 迹不涉山外, 若未嘗有仕宦者. 自號兩棄翁.)”, 「울산부사 안공 묘갈명 병서」.

36) ‘묘갈명’에서는 안서우의 무주 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안공이 이미 울산 부사(蔚山府使)의 부절(符節)을 버린 뒤로 다시는 서울 길을 찾지 않았으니, 무주(茂朱)의 빼어난 산수를 즐기며 상악(積上山) 아래에 집을 짓고 살다가 끝내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安公既解蔚山之符, 不復尋京路, 樂茂朱山水之勝, 築于裳岳之下, 終坳焉.)”, 「울산부사 안공 묘갈명 병서」.

돌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³⁷⁾ 오히려 울산부사에서 물러난 이후, 새로운 거처인 전라도 무주에 정착³⁸⁾하여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따라서 <유원십이곡>의 창작 시기는 안서우가 그곳에 잠시 은거했던 1712년 무렵이며, 작품의 배경도 바로 제천의 유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³⁹⁾ 본고에서는 <유원십이곡>의 구성과 창작 시기를 포함하여, 안서우가 남긴 시조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작품 세계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안서우의 작품이 수록된 『양기재산고』는 해방 직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었다가, 그 이후 어느 시점엔가 분실되어 현재는 그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그동안 <유원십이곡>에 대한 연구는 심재완의 『역대시조전서』⁴⁰⁾에 수록된 작품을 대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으며, 안서우에 대한 소개도 전적으로 『시조의 문헌적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었다.⁴¹⁾ 그동안 안서우와 그리고 <유원십이곡>은 전체 13수로 이뤄진 연시조이며, 그 창작 배경도 안서우가 만년에 은거하였던 무주라 논해졌었다.⁴²⁾ 그러나

37) 안정복의 연보에도 유원에 관련된 기록은, 그곳으로 이사를 하고 다시 서울로 간 내용 이외에는 발견할 수 없었다.

38) “(영종대왕) 2년 병오(1726), 선생의 나이 15세. 참의공이 체차되어 돌아와 무주(茂朱-호남 좌도의 고을 이름이다.)읍에 집을 짓고 거처를 정함에, 선생이 따라가다.(二年 丙午, 先生十五歲. 參議公遞歸, 卜居于茂朱(湖南左道邑名)邑底, 先生隨焉.)”, 『순암선생연보』.

39) 정혜원은 『동국여지승람』의 충청도 제천 항목에 ‘유원은 현의 동쪽으로 15리에 있다(楡院右縣東十五里)’는 기록을 제시하여, ‘유원(楡院)’이 제천현에 딸린 역원(驛院)임을 밝히기도 했다. 작품의 배경이 제천의 ‘유원’일 가능성을 상정했으나, 논의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고 단지 <유원십이곡>의 내용에만 의거해 작품론을 펼쳤다. 정혜원, 『18세기 강호시조 연구-연시조 작품을 중심으로』, 73~77면.

40) 심재완,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41)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135면. 이 글의 서술 내용으로 보아 심재완은 안서우의 작품이 수록된 『양기재산고』를 직접 보지 못하였고, 또한 자신보다 먼저 작품을 소개했던 정형용의 글도 접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심재완이 어떤 경로로 안서우의 작품들을 접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42) “전라도 무주에서, 산수승경을 사랑하여 은거하며 산림학과의 사상을 읊은 시조 작품 19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유원십이곡> 13수와 병록(併錄)된 6수이다.”,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135면.

그의 생애를 재구하면서 ‘유원’은 무주가 아닌 충청도 제천 지역의 지명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아래에 제시된 새로운 자료의 출현으로 <유원십이곡>은 12수로 구성된 연시조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논증할 수 있을 것이다.

<유원십이곡>은 『양기재산고』의 처음에 있는 시조다. 또 동서(同書)에는 <주계십이곡(朱溪十二曲)>이 부록으로 실렸다고 추측되나 제목을 세운 것이 보이지 않아서 확인하지 않다. 그러나 동서에는 <유원십이곡>의 앞에 한 수, 뒤에 여섯 수가 찍어 있다. 양기재(兩棄齋)는 양기옹(兩棄翁)과 동일한 사람으로 광주인(廣州人) 안서우의 아호(雅號)다. 그는 자를 봉거(鳳舉)라고 하며 유명한 역사가 순암 안정복의 조부요, 『양기재산고』는 표제를 ‘유원십이곡’이라고 한 것으로 해방 전에 국립도서관에서 순암의 저서(사본)를 구입할 때에 끼어서 넘어온 사본이라 귀중도서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 이에 <유원십이곡>은 현재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그 앞뒤에 있는 일곱 수도 아울러 여기에 실어서 이 방면의 연구에 이바지하려 한다.⁴³⁾

『양기재산고』는 안정복의 저서들을 구입할 때 그 가운데 포함된 사본(寫本) 형태였으며, 국립도서관에서 이 문헌을 귀중도서로 취급하여 다뤘다고 한다. 정형용은 당시 이 문헌을 직접 접하고, 안서우의 시조를 학계에 소개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작품과 함께 간략한 해제를 덧붙여 『어문』(제3호)에 수록했던 것이다. 그는 <유원십이곡>을 소개하면서, 이 작품과는 별개로 무주의 생활을 읊은 <주계십이곡>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하였다.⁴⁴⁾ 작품이 수록된 문헌의 원래 표제는 <유원십이곡>이라

43) 정형용, 「유원십이곡 해제」, 『어문』 제3호, 30면. 정형용은 당시 국립도서관의 귀중도서로 분류되어 있던 『양기재산고』를 직접 접하고, 거기에 수록된 안서우의 시조 작품들을 연구자들을 위해 우리어문학회의 기관지인 『어문』에 소개하였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양기재산고』는 분실되어 행방이 묘연해졌으나, 그가 소개한 이 자료를 통해 안서우의 작품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라 하겠다.

44) <주계십이곡>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문헌이 남아있지 않기에 『양기재산고』의 체제는 물론이고 부록이 존재했는지 여부조차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을 따름이다.

되어 있었는데, 국립도서관에서 저자의 호를 따서 『양기재산고』라 명명하였다 한다.⁴⁵⁾ 정형용은 ‘<유원십이곡>의 앞에 한 수, 뒤에 여섯 수’가 있다고 하여, <유원십이곡>을 13수가 아닌 12수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⁶⁾ 작품을 면밀히 살펴볼 때, 그동안 ‘서장’이라 여겨졌던 다음의 작품은 ‘귀자연(歸自然)’을 노래하고 있는 <유원십이곡>의 전반적인 내용과 이질적이라 이해된다.

내 마음 저버야 님의 마음 싱각하니
 나 슬흐면 님 슬코 님 뉘흐면 나 뉘하니
 모로미 기소불념(己所不念)을 물시어인(勿施於人) 흐리다.<#0930.1, 양기 *1>⁴⁷⁾

이 작품은 그동안 <유원십이곡>의 ‘서장’으로 취급되었는데,⁴⁸⁾ 이 작품은 작자의 인생관을 담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양기재산고』에 수록된 작품들 전체의 ‘서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된다.⁴⁹⁾ 종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신이 생각하지 않은 바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己所不念, 勿施於人)’⁵⁰⁾는 주제를 시조 형식에 담아 작품화하였다.

45) ‘산고(散稿)’라는 명칭을 붙인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문헌은 여타의 문집과는 다른 소략한 형태였을 것이다. 원래의 표제가 ‘유원십이곡’이라 되어 있었다면, 주로 시조 작품 위주로 구성된 체제가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46) 수록 문헌을 직접 접하여 확인하고, 자료를 인용·소개했던 정형용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47) 작품을 인용할 경우 한자는 한글로 표기하며, 원문은 () 안에 기입한다. 작품 끝 부분의 < > 안에는 『고시조대전』(김흥규 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의 가번(#)을 적고, 이어서 수록 문헌의 약칭(양기)과 가번(*)을 병기하기로 한다.

48) 김상진은 “서장을 둠으로써 향후 화자가 노래하는 것에 방향성을 두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김상진, 안서우의 <유원십이곡> 재조명, 13면) 그러나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육가 계열로 칭해졌던 작품들은 대체로 6수 혹은 12수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의 서장을 두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49) 그의 작품들 중에서 이 작품의 주제는 매우 특이한 것이라 하겠는데, 이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18수의 작품들은 모두 ‘귀자연’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50) 『논어』 ‘위령공편’에 있는 ‘기소불욕(己所不欲), 물시어인(勿施於人)’의 내용을 달리 표현한 말이다. 『논어』에는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이 “한 마디 말로써 평생토록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라는 질문에, “서(恕)이다(其恕乎)”라고 답변하면서 덧붙인 말이다. 즉 ‘서(恕)’의 구체적 내용에

이에 대해 작자는 초장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남의 마음을 생각하고, 중장에서는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당연히 남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라고 구체화하여 풀어내고 있다.⁵¹⁾ 내용으로 보더라도 이 작품은 자연에 귀의하여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유원십이곡>의 맥락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작자 자신의 인생관을 형상화하여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 작품을 <유원십이곡>과 별개로 논해야만 할 것이다.

이 작품에 이어서 <유원십이곡> 12수가 수록되어 있다. <유원십이곡>을 비롯한 안서우의 시조 작품에는 다양한 전고(典故)가 나타나고 있어, 그것을 배제하고 표면적인 의미만을 따진다면 자칫 해석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유원십이곡>의 구조를 살피고, 기존의 연구에서 문제가 되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⁵²⁾ <유원십이곡>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긴밀성이 약하고, 그 내용도 강호 생활의 즐거움과 개인적 울분이 함께 혼합되어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⁵³⁾ 이는 <유원십이곡>을 전체 13수로 파악하여 구조를 따졌고, 아울러 작품의 해석에 대한 오류로 인한 것 때문이라 생각된

해당한다고 하겠다.

51) 윤정화는 이 작품을 <유원십이곡>의 서장으로 보고, “전기 사대부들이 전원생활을 통해 은거의 지표로 제시했던 심성수양과 학문탐구라는 성리학자로서의 뚜렷한 이념과 철학이 안서우에게서는 많이 퇴색되”었기 때문이라 해석했다.(윤정화, 앞의 논문, 122면.) 또한 김상진은 “서장에서 보이는 화자의 모습은 상대에 대한 관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타인에 대한 불만이나 서운함의 결과이고, 더 나아가 이는 강호 생활에 머무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이라”고까지 논하고 있다.(김상진, 앞의 논문, 14면.)

52) 일단 필자가 해석한 작품 세계와 기존의 연구들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또한 <유원십이곡>의 구조와 작품 세계를 분석하는 작업은 적지 않은 원고 분량이 요구되는 바, 추후에 이 논문과는 별도로 <유원십이곡>의 구조와 전체적인 작품 분석을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의에 대한 반론의 성격으로, 주요 작품들을 예로 들어 구조와 작품 세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기로 하겠다.

53) “13수로 된 <유원십이곡>은 각 수 간의 상호 긴밀성은 약한 편이며 강호한거의 락(樂)과 성리학적 생활 태도, 개인적 울분이 함께 혼합되어 표출된다.”, 정혜원, 앞의 논문, 76면. 이후 윤정화와 김상진의 평가도 비슷하게 내려지고 있다.

다. 오히려 12수의 작품은 ‘전6수’와 ‘후6수’가 구조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 ‘유원’으로 대표되는 강호 생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정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전6수’는 화자가 강호를 선택하게 된 동기와 그 생활이 긴밀하게 조응되어 그려지고 있다. 즉 제1장~제3장에서 화자가 귀자연(歸自然)을 택한 동기와 의미를 제시하고, 제4장~제6장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자연에서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그려내고 있다. 다음 두 작품을 통해 ‘전6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측면을 논해보기로 하겠다.

문장(文章)을 흐자 하니 인생식자 우환시(人生識字憂患始)오
공맹(孔孟)을 비호려 하니 도약등천 불가급(道若登天不可及)이로다
이 내 몸 쓸 디 업스니 성대 농포(聖代農圃) 되오리라. 제1장<#1717.1, 양기 *2>

경전(耕田)흐야 조석(朝夕)흐고 조수(釣水)흐야 반찬(飯餐)흐며
장요(長腰)의 하겸(荷鎌)흐고 심산(深山)의 채초(採樵)흐니
내 생애(生涯) 이 썬이라 뉘라셔 다시 알리. 제4장<#0252.1, 양기 *5>

<유원십이곡>의 제1장은 초장과 중장에서 ‘문장과 공맹’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중장에서는 자연에 귀의하여 ‘성대 농포’⁵⁴⁾가 되겠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특히 초장의 ‘인생식자 우환시(人生識字憂患始)’라는 표현은 작자가 직접 접했던 당대의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개재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더욱이 중장에서는 출사(出仕)의 길이 막힌 상황에서 경전 학습을 통해 유가의 도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면모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형상화의 의미는 그동안 안서우가 ‘문장을 통한 입신의 길을 포기’⁵⁵⁾했기 때문으로 이해되어 왔다.

54) ‘농포(農圃)’는 『논어』의 ‘자로편’에서 유래한 것으로, 선비가 실천해야 할 ‘치국지도(治國之道)’에 대비되는 채소 가꾸는 등의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란 의미이다. (“樊遲，請學稼。子曰‘吾不如老農’。請學爲圃。曰‘吾不如老圃。’樊遲出。子曰‘小人哉，樊須也。’”，『論語』.)

55) 윤정화, 앞의 논문, 122면.

그러나 이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과거에 급제하고 막 환로에 나선 시점에 당시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충청도 유원에서의 생활을 선택해야했던 그의 처지를 고려해야만 한다. 당쟁으로 인해 자신이 속한 정파가 대거 조정에서 축출되면서 안서우는 급작스럽게 서울을 떠나야만 했고, 자신이 과연 관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약도 할 수 없는 암울한 처지였다. 이는 결국 지식인으로서의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화자는 자신이 현실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기에 ‘문장’과 ‘공맹’으로 상징되는 관료 생활이 아니라, 차라리 자연에 묻혀 ‘농포’로서 살아가겠다고 언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제4장에서는 자신이 택한 ‘농포’로서의 구체적 생활상을 그려내고 있다. 초장은 밭을 갈고 낚시하여 조석의 끼니와 반찬을 해결하는 모습을, 중장에서는 허리에 낫을 차고 깊은 산에 들어가 나무를 하는 형상을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생활이야말로 자신이 언명한 ‘성대 농포’의 생활에 적절한 모습이라 여겼던 것이다. 종장에서는 그러한 생활에 대한 자족적인 인식을 드러냄으로써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자연에서의 ‘요산요수(樂山樂水)’를 말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5장에서 화자가 ‘자연의 주인’을 자처하는 형상을 그려내고 있다. 제3장에서는 자연에서의 ‘무한지락(無限之樂)’을 언명하고, 제6장에서는 물외(物外)에서 생활하는 자신의 삶을 ‘내 분’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전6수’는 구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파악된다. 즉 앞의 3수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이어지는 뒷부분의 3수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자신이 택한 귀자연의 동기와 그 실상에 대해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후6수’가 특히 구조적인 긴밀성이 떨어지고, 마지막 제12장은 그 이전까지 작품들과 상호 모순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⁵⁶⁾ 나아가 이 작품에 표현된 면모를 ‘강호자연으로 위장된 현실적 불

56) “<유원십이곡>의 마지막 장은 12장까지 노래된 내용과 상호모순을 일으키며 이제까지 누누이 강조해 온 물외에 한거하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일 수 없음을 명백

만의 토로'57) 혹은 '위장된 강호의 즐거움'58) 등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작품을 면밀히 따져본 결과, 필자로서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오히려 최종적으로 자연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화자가 갈등했던 다양한 형상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연으로 귀의하겠다는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후6수'는 사대부로서 관료로서의 길을 택했으나, 외적인 요인에 의해 관직을 그만두고 자연에 머문 것에 대한 자기 설득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한 갈등을 겪은 뒤에, 마침내 자연에 귀의하겠다는 확신을 표명함으로써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제7장에서는 백운(白雲)과 백구(白鷗)를 화자의 벗으로 여기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제8장에서는 강호에서의 생활을 그리면서 '작비금시(昨非今是)'라는 표현을 통해 과거의 삶의 모습에 대한 반성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제9장의 종장에서는 '부지지(不知止)'59)라는 표현을 통해, 속세에서의 지나간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할 것이다. 제11장에서는 다시 자연을 택한 화자의 정서를 '일흥(逸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후6수'에서는 화자의 현재 강호 생활을 그리면서, 과거의 속세에 대한 인식이 대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특히 해석의 논란이 많았던 다음의 두 작품을 들어 그 의미를 따져보기로 하자.

히 보여준다.”, 정혜원, 앞의 논문, 77면. 정혜원은 이 작품을 전체 13수로 파악했기에, 이 글에서 '12장'이란 <유원십이곡> 제11장을 지칭한다.

57) 윤정화, 앞의 논문, 121면.

58) 김상진, 앞의 논문, 23면.

59) '지지(知止)'는 『도덕경』 44장의 “만족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침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知足不辱, 知止不殆)”에서 온 표현이다. 이 작품의 초·종장에서 도연명과 태부(사안으로 추정)의 고사를 들어 벼슬길에서 적당한 때에 그치는 것이 '호연행색(浩然行色)'인데, 화자는 종장에서 '알고도 부지지(不知止)'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화자가 자연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 봤을 때, 속세에서의 삶이 매우 '위태로웠다(殆)'는 자각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내 므음 정(定)흔 후(後)니 위빈이사(爲貧而仕) 거긱말이
 내 몸을 자전(自專)티 못흔니 위친이굴(爲親而屈)이 올흔 말이
 이제나 양극전성(養極專城)흔니 도라 갈가 흐노라. 제10장<#0931.1, 양기 *11>

먹거든 머지 마나 멀거든 먹지 마나
 멀고 먹거든 말이나 흐련마는
 입조차 병어리 되니 말 못흔여 흐노라. 제12장<#1628.1, 양기 *13>

제10장의 ‘위빈이사(爲貧而仕)’와 ‘위친이굴(爲親而屈)’이라는 표현은 『맹자』 ‘만장편’⁶⁰⁾에서 유래한 것이다. 화자는 이 작품에서 자신이 과거에 벼슬을 한 것은 가난함을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뜻을 굽혔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종장에서는 과거 자신이 뜻을 굽혀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었으니,⁶¹⁾ 이제는 자연으로 돌아가겠노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이 작품은 ‘강호의 삶을 두고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혼돈스러워하는 화자의 심정’⁶²⁾을 그린 것이 아니라, 관직을 그만두고 자연을 선택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귀자연(歸自然)’의 의지를 재차 다지는 내용이라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 작품인 제12장 역시 기존의 연구에서는 ‘귀먹고 눈멀고 말조차 못하는 병어리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에 대한 울분이 토로되’⁶³⁾었다고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이 작품은 오히려 화자가 자신이 머

60) “벼슬함은 가난을 위해서가 아니지만, 때로는 가난을 위한 경우가 있다.(仕非爲貧也, 而有時乎爲貧.)”, 『맹자』. 이에 대한 주석에 ‘벼슬함은 본래 도를 행하기 위해서이나, 또한 집이 가난하고 부모가 늙었거나, 혹은 도가 때와 맞지 않아 다만 녹사(祿仕)하는 경우가 있다.(仕, 本爲行道, 而亦有家貧親老, 或道與時違而但爲祿仕者.)’라고 풀이하였다. 이는 유자(儒者)가 때에 따라 가난을 벗어나거나,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어찌할 수 없이 벼슬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이다.

61) ‘양극전성(養極專城)’이란 벼슬을 하여 부모님을 봉양한다는 의미인 ‘전성지양(專城之養)’의 다른 표현인데, 과거 유자들은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이 작품에서 ‘위빈이사(爲貧而仕)’를 거긱말로 표현하고, ‘위친이굴(爲親而屈)’을 올흔 말로 대비시켜, 과거 자신의 벼슬길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셈이다.

62) 김상진, 앞의 논문, 24면.

63) 정혜원, 앞의 논문, 77면. 김상진은 이러한 해석에서 더 나아가 “삼중 장애의 고통에 비유하며 결코 해소되지 않는 마음의 울분을 표출하며 작품을 끝맺”었다고

물렀던 속세에 대해서 귀먹고 눈멀고 병어리처럼 살면서, 오로지 자연에서의 생활에만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적극적인 귀자연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즉 ‘후6수’의 흐름 속에서 속세와 자연 사이에서 갈등하던 양상이 마지막 작품에 이르러 화자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해소되면서, 확고하게 자연을 선택하겠노라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1장에서 화자는 ‘문장’과 ‘공맹의 도’를 포기하고 ‘농포’로서의 삶을 택하겠다고 했는데, 자연에 묻혀 농포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귀먹고 눈멀고 더욱이 병어리처럼’ 살아야만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원십이곡>은 ‘전6수’와 ‘후6수’가 긴밀하게 조음하면서, 화자가 자연을 선택하여 정착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에도 불구하고, 안서우는 이 작품을 짓고 난 얼마 후에 유원을 떠나 다시 중앙 정계로 진출하여 관료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 아마 이 작품을 지을 시기에는 다시 정치 현실로 복귀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관료로서의 만족스러운 경험을 해보지 못한 상태여서 타의에 의해 선택한 ‘귀자연’의 생활이었기에, 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진정한 ‘귀자연’의 모습은 울산부사를 그만둔 만년에 전라도 무주에서 은거했을 때에나 가능했을 것이다.⁶⁴⁾

이밖에도 <유원십이곡>의 뒷부분에 6수의 작품이 더 수록되어 있다. 후반부에 수록된 6수의 작품은 모두 주변의 자연 풍광을 그리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자족적인 시선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들 작품에는 <유원십이곡>에서 보였던 속세와의 갈등조차도 나타나지 않고, 화자의 시선은 철저히 자연으로 향하고 있다. 『양기재산고』의 마지막 작품에서는 ‘연하(煙霞)’와 ‘풍월(風月)’을 집과 벗으로 삼아 무심히 살아가

논하였다. 김상진, 앞의 논문, 29면.

64) 그러나 이 시기의 안서우의 모습을 형상화한 문학 작품은 현재로서는 전하지가 않는다.

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도 하다.⁶⁵⁾ 아마도 이 작품들을 지을 때쯤에는 안서우도 이미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자연에 은거하겠다는 마음을 굳혀가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안서우는 정계에 복귀하여 관료로 생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유원십이곡>에 바로 이어지는 3수의 작품은 제천의 유원 부근의 지명을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뒤에 수록된 작품들은 모두 제천의 유원 시절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파악된다.

산명이동(山名以東)하니 사태부(謝太傅) 노던 된가
촌거근사(村居近社)하니 직하리(稷下里) 여기로다
아희야 현송을(絃誦乙) 니겨스라 고와시기(高臥時起)하니라.<#2304.1, 양기 *16>

이 작품은 중국 동진(東晉)의 사안(謝安)⁶⁶⁾에 관한 고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흔히 ‘동산고와(東山高臥)’란 벼슬을 버리고 사안이 동산에서 편히 지내듯이 은거하는 삶을 의미한다. 동진의 사안이 은거하던 곳의 지명이 동산(東山)인데, 공교롭게도 작자가 거쳐하던 곳에도 같은 이름의 동산(東山)⁶⁷⁾이 있기에 그것을 통해 자신과 사안을 동일시하여 형상화했던 것이다.⁶⁸⁾ 종장의 ‘거문고를 타면서 시를 읊는(絃誦)’ 생활을 하면서 높이 누워 때에 맞춰 일어나는 화자의 생활이 마치 동진의 사안과 흡사하다고

65) “집이 집이 아냐 연하(烟霞)아 내 집이오 / 벗이 벗이 아냐 풍월(風月)이나 내 벗이되 / 집 잇고 벗 어든 후(後)니 만사무심(萬事無心)하니라.”<#4507.1, 양기 *19>.

66) 동진의 사안(謝安)은 젊었을 때부터 조정에서 불렀으나 매번 사양하고 초야에 묻혀 살았다. 그는 회계의 동산(東山)에서 은거하다가, 나이 40에 이르러 관직에 나아가 후에 태부(太傅)의 벼슬에 이르러 사태부라고 칭하기도 한다.

67) 초장의 ‘동으로 산의 이름을 짓다(山名以東)’는 것에서 제천의 동산(東山)을 소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산은 제천의 금성면에 있는 산이다. 『제천시지』(상), 82면.

68) 종장의 직하리도 사안이 거쳐하던 곳의 지명과 관련되는 듯하나,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자평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단양과 경계에 있는 옥순봉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작품⁶⁹⁾과, 단양의 적성과 제천의 향로봉이 등장하는 작품⁷⁰⁾도 이 작품의 바로 앞에 배치되어 있다. 이어지는 마지막 3수의 작품 배경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서 『양기재산고』에 수록된 대부분의 작품들이 안서우의 유원 시절에 창작된 것이라 파악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⁷¹⁾

이상으로 안서우의 전체 작품들을 대상으로 그 작품 세계와 의미를 따져보았다. 기존의 연구에서 <유원십이곡>이 긴밀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되었으나, 오히려 12수로 구성된 연시조로 ‘전6수’와 ‘후6수’가 조응되어 전체적으로 ‘귀자연’의 면모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동안 연시조의 서장으로 알려졌던 작품은 내용과 주제의 측면에서도 다른 작품들과 구별되어, 차라리 안서우 전체 작품을 포괄하는 ‘서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밖에도 <유원십이곡>의 뒷부분에 있는 6수의 작품들 역시 화자의 자연 생활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고 있어, 안서우라는 관료 문인의 자연 인식의 일면모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서우의 생애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기존의 연구들에서 <유원십이곡>을 ‘향촌사대부’ 혹은 ‘재지사족’의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 작품들을 통해서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관료 문인들의 자연 인식에 대해서 재론할 여지가 있다

69) “옥봉(玉峯)의 늑는 구름 가지 말고 게 잇거라 / 네 비록 무심(無心)흔들 나는 보매 유정(有情)하다 / 구름도 드림이 잇던디 장요영상(長繞嶺上) 헛는다.”<#3471.1, 양기 *14>. 이 작품 역시 자연이 풍경을 그려내고 있는데, 초장의 ‘옥봉(玉峯)’은 유원 근처의 지명인 옥순봉을 지칭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70) “적성(赤城)의 단하(丹霞) 기(起)하니 천태(天台)는 어디메오 / 향로(香爐)에 자연(紫烟) 생(生)하니 천태산(天台山)이 여기로다 / 이 등의 무한 선경(無限仙景)이 내분(分)인가 헛노라.”<#4279.1, 양기 *15>. 이 작품은 주변의 적성과 향로라는 곳의 풍경을 선경으로 묘사하면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화자의 모습을 ‘분(分)’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역시 자연 생활의 자족적인 면모를 그린 작품인데, 초장과 중장의 ‘적성’과 ‘향로’ 역시 제천 근처의 적성과 향로산을 지칭한 것이라 파악된다.

71) 국립도서관에서 입수할 당시의 사본에 ‘유원십이곡’이라 제명이 붙었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성과라 하겠다.⁷²⁾

4. 맺음말

그동안 시조 작가로서 안서우에 대한 연구는 연시조인 <유원십이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조선 후기 사대부 작가로서 모두 19수의 작품을 남기고 있음에도, 그의 생애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여 작가론의 차원에서는 제대로 다루지지 못했다. 다만 그가 만년에 전라도 무주에 은거하면서 그곳의 산수를 좋아하였다는 단편적인 기록에 근거하여, 이 당시 그의 생활과 연관시켜 작품 세계를 논하였던 것이다. <유원십이곡>을 비롯한 그의 작품들이 대부분 자연을 소재로 한 강호시조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기에, 이러한 논의가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하다. 더욱이 그의 작품이 수록된 『양기재산고』가 분실되면서, 시조 작가로서 안서우의 면모에 대해서는 제대로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문헌이 분실되기 전에 이를 근거로 작품을 소개한 자료가 새로이 발견되고, 안서우의 생애를 밝힐 수 있는 다양한 기록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안서우의 생애를 가능한 상세하게 재구하고, <유원십이곡>을 비롯한 그의 작품들에 대한 창작 배경과 작품 세계 등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안서우를 ‘향촌사대부’ 혹은 ‘재지사족’으로 다루었지만, 오히려 중앙 정계에서 활동했던 관료 문인으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이익의 『성호전집』에 수록된 안서우의 ‘묘갈명’을 통해서, 31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간 이후

72) 안서우의 사례를 통해서 18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작가들의 작품 세계가, 기존의 논의들처럼 ‘향촌사대부’와 ‘관료 문인’으로 현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재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조사적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0여 년간 내·외직을 역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가 관직에 있던 시기는 남인과 서인 사이의 당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는데, 남인이었던 그의 관료 생활은 당시의 정치 상황에 깊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안서우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49세가 되던 1712년에 서울을 떠나 충청도 제천의 유원에 은거하게 되었고, 이때에 <유원십이곡>을 비롯한 그의 시조 작품들이 창작되었던 것이다. 이 작품들에서는 대체로 자연에서의 자족적인 생활상을 그려내고 있는데, 아마도 안서우는 자신의 은거 생활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오래지 않아 중앙 정계에 복귀하여 다시 관직에 올랐고, 63세에 울산부사를 마지막으로 전라도 무주에 은거하며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그의 작품들 중 <유원십이곡>은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12수로 이뤄진 연시조이며, ‘전6수’와 ‘후6수’로 나뉘어 화자의 ‘귀자연’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다른 작품들 역시 화자가 자연에 머물면서 그곳의 생활에 대한 자족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어, 이 시기 강호시조의 흐름과 연계시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유원십이곡>의 구조와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한 고찰이 요구되기에, 이에 대한 탐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안정복, 『순암집(順菴集)』.

이익, 『성호전집(星湖全集)』.

김홍규 · 이형대 · 이상원 · 김용찬 · 권순희 · 신경숙 · 박규홍, 『고시조 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윤영옥, 『시조의 이해』,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6.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세종문화사, 1972.

정형용, 「유원십이곡」, 『어문』 제3호, 우리어문학회, 1950.

2. 논문 및 단행본

강명관, 『책벌레들 조선을 만든다』, 푸른역사, 2007, 192~207면.

김상오, 「당쟁사 입장에서 본 이이의 문묘종사 문제」, 『전북사학』 제4집, 전북사학회, 1980, 175~187면.

김상진, 「안서우의 <유원십이곡> 재조명-강호인식과 연작성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제19집, 온지학회, 2008, 7~35면.

유성희 · 김연민, 「숙종조 노론의 도통론」,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호,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8, 161~193면.

윤재민, 「18세기 광주와 문학-순암 안정복의 「영장산객전」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8, 한국실학학회, 2004, 183~211면.

윤정, 「재위 전반기(1725~1746) 영조의 군신관계 이해-‘군신분의’론의 적용과 지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제29집, 고려사학회, 2007, 99~138면.

윤정화, 「18세기 향촌사대부의 ‘육가’ 수용의 양상과 의미」, 『문창어문논집』 38, 문창어문학회, 2001, 115~142면.

이상원, 「‘육가’ 시형의 연원과 ‘육가형 시조’의 성립」, 『어문논집』 제52집, 민족어문학회, 2005, 179~208면.

- 이이화, 「조선조 당론의 전개 과정과 그 계보」, 『조선 후기 정치사상과 사회 변동』, 한길사, 1994, 15~84면.
- 이태진, 「18세기 남인의 정치적 쇠퇴와 영남지방」, 『민족문화논총』 제 11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195~205면.
- 이희환, 「갑술환국과 숙종」, 『전북사학』 11·12합, 전북사학회, 1989, 135~176면.
- 이희환, 「경종대의 신축환국과 임인고변」, 『전북사학』 제15집, 전북사학회, 1992, 163~205면.
- 이희환, 『조선정치사』, 혜안, 2015, 1~393면.
- 정경희, 「숙종 후반기 탕평정국의 변화」, 『한국학보』 21권 2호, 일지사, 1995, 162~186면.
- 정혜원, 「18세기 강호시조 연구-연시조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총』 제4호, 상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71~91면.
- 최재남, 「‘육가’의 수용과 전승에 대한 고찰」, 『관악어문연구』 1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7, 319~347면.

<Abstract>

Life of Ahn Seowoo and the Background of His Sijo Creation

Kim, Yong–chan

Ahn Seowoo is a nobleman of late Chosun dynasty and sijo author who bequeathed 19 sijo works. Previous studies focused on only one of his works <Yuwonshibigok>, while his life and the background of work creation were discussed unreliably. Recently a new material that enables reconstitution of his life was found, which made it possible to study his consciousness as a writer as well as his oeuvres. This article discusses Ahn Seowoo's oeuvres comprising his entire works including <Yuwonshibigok> and his life based on the material.

The lives of noblemen of late Chosun dynasty were closely connected to the political posture of those days and so was the life of Ahn Seowoo who was a member of Nam(southern) Party. In late 17th century when Ahn Seowoo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severe power struggle between the members of Nam Party and Seo(western) Party was in progress. This study expiscates based on various records that he resigned in 1712 because of party strife and retired to hermitage in Jecheon, Chung–Cheong Province. It is also found that several sijo works of his were created while he was in Jecheo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reports of previous studies.

<Yuwonshibigok>, which has been known to be composed of 13 stanzas, is found to be a stanzaic sijo consisting of 12 stanzas, in which

'former 6 stanzas' and 'latter 6 stanzas' are in close correspondence. Most works of his sing nature, showing cognition of self-sufficiency of staying in nature. However, Ahn Seowoo returned to the political world soon and resigned when he was 63. Afterward he stayed in Muju, Jeolla Province until he died when he was 72. <Yuwonshibigok> seems to need further investigation in terms of its structure and content, which will be investigated in more detail in a future study.

Key words : Ahn Seowoo, Yanggijaesango, sijo, Yuwonshibigok, six-stanza sijo, background of creation

투고일 : 2016년 1월 14일, 심사 : 1월 18일 ~ 2월 12일, 게재확정 : 2월 12일